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인사말

2026. 5. 15.(금) 14:16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금융감독원장
이찬진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문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금융감독자문위원의 직(職)을 새롭게 수락해 주신
신규 위원님들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출범한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으시는
여러 자문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장(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회의도

금융감독원과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II 최근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감독 방향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상황의 여파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견조한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기상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환율, 고물가 상황이 장기간 계속된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은 위축되고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대출 실태점검, PF대출 한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부동산 PF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행권 운영·시장 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보험권 K-ICS 비율 산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따뜻한 금융이 필요합니다.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이 서민·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확립하고 모든 감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금융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쏠 과정에 걸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금융상품 설계,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별 리스크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별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Ⅲ 맺음말

존경하는 자문위원님들,

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의 모든 임직원들은
생산적이고 따뜻한 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전체회의와 앞으로 진행되는 각 분과 회의에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감독원에
변함없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